



‘영키고 가려진’ 일상 속 파도를 기다리는 순간들

아트스페이스씨 이가경 전
보통의 일상 사회적 확장
반복 노동 작업의 결과물
연기·철책선 시리즈 등
오늘이 만들어내는 역사

수 분 동안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려면 목탄 드로잉이나 판화 수백장이 필요하다. 그는 두꺼운 판 위에 이미지를 그려서 찍은 뒤 사포로 지운 후 그 위에 덧그리는 과정을 수도없이 반복했다. 자연스레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현재에 덧입혀졌다. 매일매일 같은 장소를 지나치는 무심한 일상이지만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

만지고 있는 이가경 작가. 10여년 전 4·3평화기념관 상설전에 참여하며 제주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주목받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가 제주로 향했다. 이달 10~23일 제주시 중앙로 아트스페이스씨(대표 안혜경)에서 ‘영키고 가려진’이란 이름의 개인전을 갖는다.

근래 이 작가는 판화, 드로잉, 영상 설치 등으로 일상의 ‘비역사적’ 의미를 사회로 확장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 재앙,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일상을 파고 드는 게 현실인 탓이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연기는 옛적 밭짓는 굴뚝을 넘어 공장의 매연, 대형 산불, 화산 폭발(‘연기’ 시리즈) 등으로 이어진다. 작가가 유년시절 고향의 미군기지 인근에서 늘상 봤던 철책선(‘철책선’ 시리즈)은 전쟁



이가경의 ‘철책선 시리즈-실놀이’.

과 평화의 경계를 오간다. 미국의 어느 해변을 배경으로 한 ‘서평’ 시리즈는 파도타기가 아니라 파도에 대항하며 보드에 오르려는 기다림의 장면이 남실낸다. 파도는 미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은유한다.

영키고 가려진 일상 속 익명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닐까. ‘철책선’ 시리즈의 실놀이에 그 힘이 읽힌다.

아이들이 실놀이를 하며 꼬인 실을 풀듯 꼬여진 철책선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장삼이사, 필부필부의 하루하루에 있다.

전시는 아트스페이스씨 3층과 지하에서 동시에 진행(낮 12~오후 6시)된다. 첫날 오후 7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됐다. 문의 064)745-3693. 전신회지사 sunny@ihalla.com

시(詩)로 읽는 4:3 (11)

기지로 돌아가거든

임화

5병대 7병단 1군단
김생 김달삼 이호제 박치우 서
득은
여러 슬기로운 지휘관들의 피
아직도 눈 위에 임리하고

청옥산 태기산 일월산
국망봉 백암산 준령들의 산정
위
피바람 불어 끊이지 않는 저
협준한 태백산 전구의 이름과

임화(林華)가 1952년 7월에 쓴 시, ‘기지로 돌아가거든’의 한 구절이다. 시인은 한국전쟁 이전의 ‘빨치산’인 남로당 인민유격대 지휘관으로 전사한 동지들의 서늘한 이름을 부른다. 시에는 5병대 7병단 1군단 소속의 지휘관들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박치우(朴致祐, 1909~1949)와 김달삼(金達三, 본명 이승진)이 눈에 띈다.

1948년 8월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 이후에도 수세에 몰린 남로당 세력은 1949년 9월 총봉기를 통해 강동정치학원생들로 구성된 유격대를 남파했다. ‘여순반란’ 사건 이후 입산한 세력과 더불어 그들은 이미 6월부터 400여명이 오대산 지구로 투입되었다. 1949년 가을, 박치우와 그의 동지들은 자신의 삶과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백산 지구로 투입된 박치우의 1군단은 군경합동 토벌대에 의해 와해되고, 잔류병들은 제3군단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여 끝까지 저항했지만 끝내 태백산 인근에서 주검도 없이 산화했다. 4:3을 주도했던 김달삼은 자신의 최후를 어느 지명에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공식 지명인 ‘김달삼모가지정리골(정선군 여행면 봉정리)’. 스물여덟 살의 나이로 죽은 그는 빨치산 대상의 ‘잘린 모가지’는 왜 중요했을까. 이름 없이 사라져 간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고, 서로를 절멸 시키려고 했던 상처는 두터운 피막지가 되어 말라버렸다.

‘서양철학 1세대’의 대표적 인물 박치우. “약 2주일 전 태백산 전투에서 적의 괴수 박치우를 사살하였다.” 동아일보 1949년 12월 4일자 신문에 짧막하게 소개된 신 태영 육군참모총장의 말이 박치우의 마지막 행적이다. 박치우는 북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었다. 1947년 10월 이후부터는 월북한 남로당 잔존 세력을 교육, 유격대로 양성하기 위한 ‘강동정치학원(江東政治學院)’을 세웠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석리의 탄광촌에 마련된 그곳은 당원들을 재규합하고 사상을 버리고 무장투쟁을 교육하기 위한 군사학교였다. 하지만 자신과 월북한 좌익이 곧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것을 그는 직감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제주 도깨비 설화와 디자인이 만났을 때

칸브랜드전 연갤러리

모빌·수호신·배지 등

제주 도깨비 설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작품이 전시장에 펼쳐진다. ‘불안에서의 감각’이란 이름을 달고 6월 8~17일 제주시 연북로 연갤러리 2층에서 열리는 칸 브랜드 전시회다. ‘칸’은 ‘타다’는 뜻을 지닌 제주

방언 ‘카다’에서 따왔다. 한때 격절 지었던 섬이 주는 불안감을 덜기 위해 모셨던 신 중의 하나인 도깨비가 제주에서 뚜렷한 형상없이 ‘불’로 전해지면서 연상되는 어휘를 붙여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는 이은혜·고경희 디자이너가 참여해 제주 도깨비가 품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각화한 작품을 펼쳐놓는



다. 불 모빌, 도깨비 배지, 금속 책갈피, 집을 지키는 가업수호신, 향토, 성냥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4)757-4477. 전신회지사

문화가 쏘지

내일 제주·대구 교류음악회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허대식)가 주최하는 2019 제주·대구 교류음악회가 이달 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흥정호씨가 지휘봉을 잡는 제주프라이팔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래 대구와 제주 두 지역 음악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가곡,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제주음악협회 출연진은 테너 강현권, 소프라노 이은진, 바리톤 김훈서, 소프라노 오능희씨 등이다. 관람료 무료. 문의 010-4753-4613.

한라산수국회 6회 회원전

한라산수국회(회장 양병수)가 이달 7~9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제6회 한라산수국회전을 갖는다.

산수국은 6월 제주의 산과 계곡을 형형색색 수놓는 꽃이다. 2011년 10월 창립한 한라산수국회는 2014년 6월 첫 회원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주 산수국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를 해마다 열어왔다. 보배, 굽부리, 공작, 만덕, 옥구슬, 영주담, 청매 등 수국 등록 품종 작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현재 2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름마치의 ‘바람의 노래’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 인 페스티벌’ 초청작 ‘노름마치의 세계 음악여행 SSBSD 시즌 6-바람의 노래’가 이달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에서 무료 공연된다.

노름마치는 몽골 연주자와 춤꾼으로 구성된 고비양상블을 초청해 초르, 마두금, 퉁송 등 몽골 전통악기와 태평소, 소리북, 피리, 가야금 등 우리 전통악기의 앙상블로 대자연의 제주에서 첫선을 보인 후 6월 20일에는 국립중앙극장으로 향한다.

생활 속 글쓰기 비평교실

동네토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생활 속 글쓰기 비평교실’을 운영한다.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8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비평교실은 신혜금 독서코칭 강사의 지도로 ‘프로이트&라캉-무의식에서의 초대’(김석 지음)를 운영도서로 선정해 각 장별로 관련된 문학작품, 예술작품을 감상·토론하고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수강생 모집은 마감시까지 선착순 방문이나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5년 임기 제주학연구센터장 중도 하차

3년여 만에 돌연 사표 제출 그제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4일자로 박 센터장을 의원면직하고 좌혜경 전문연구위원을 센터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2011년 8월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의 연구와 대중화를 목

표 사업을 펴왔다. 2016년 3월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새롭게 총원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센터장 등을 공모로 선발 임용했다.

박 센터장이 5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말이 오가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활성화를 취지로 전문 인력을 투입했는데 중도 하차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인 제주학센터의 재단법인 전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신회지사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능시스템(조색기) 구비

뉴 신상품 초속경보수몰탈 (몰탈시공 2~3시간 후 타공사 가능)

특징 접착강도가 가장 빠른 몰탈 (5mm이상) **용도** 건축물보수/보강(특히 옥상 물 고이는 곳) 콘크리트 페인 도로 보수 공사용 기타 높은 강도 및 접착강도가 요구되는 공사

강력접착방수제 **향반 칠하면 오래 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페인트**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특징 **특징** **특징**

- 통기성(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알철(옥상, 외벽)
- 소비가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주식공사처·건설동 현대아파트·외도 일우아파트 외)
- 향반 칠하면 오래 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페인트
-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시간절약, 비용절약)
-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주박,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 세일자동차 외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뎀공주입니다.**